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CLC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Christian Life Community]

CLC 는 스페인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 투신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평신도 단체입니다.

예수회 창설 23년 후인1563년 3월25일 (세계CLC의 날)에 Jean Leunis 신부가 평신도 단체인 '성모회'로 시작하여 1967년 4차 로마 총회에서 ' CLC '라는 새로운 이름을 채택하고 CLC 삶의 양식인 정관을 승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CLC-USA 에는 5개의 문화 그룹 (한인, 베트남, 폴리쉬, 히스페닉,백인) 의 약 1500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그중에 미주 한인 CLC 는 5개 지역(뉴욕, 워싱톤, 서부, 애틀란타, 시카고)의 약 3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 지역의 한인 CLC 는 1995년 이냐시오 침묵 피정을 시작으로 1996년 CLC-USA 에 소속되었으며 현재18개의 소공동체, 약115명의 회원들이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기도와 삶, 사도직을 나누며 각자의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 사명을 위하여 식별하는 공동체 **

1. 사 명

CLC 적인 의미로 사명은 '활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하느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교회적 감각, 단순한 생활양식, 그리고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에 이르게 하는 유연하고 개방된 자세를 뜻합니다.

2. 식 별

이냐시오 영성은 통합된 영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냐시오의 식별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는지,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동참하고 평화로운 감각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소외, 좌절, 그리고 탈진되는지를 자각하게 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3.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의 양식을 단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성스러움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친밀감/민감함을 성장시켜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 끊임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태도를 지향합니다.

■ 에디슨 한인 성당 CLC소공동체와 회원
(카도너/사랑/밀알/해바라기 24 명)

"주여, 저를 받으소서"

받아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 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니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주여 저를 받으소서")

주님 승천 대축일

2022년
5월 2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 화답송 시편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에페소서 1,17-23

 #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 24,46-53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5/30/22	사도행전 19,1-8	요한 16,29-33
화요일 05/31/22	스바니야 예언서 3,14-18	루카 1,39-56
수요일 06/01/22	사도행전 20,28-38	요한 17,11ㄷ-19
목요일 06/02/22	사도행전 22,30;23,6-11	요한 17,20-26
금요일 06/03/22	사도행전 25,13ㄴ-21	요한 21,15-19
토요일 06/04/22	사도행전 28,16-20.30-31	요한 21,20-25
일요일 06/05/22	사도행전 2,1-11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3-13	요한 20,19-23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이근수(세례자 요한) - 박재영(요아킴), 안현정(소화데레사)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김명자(헬레나) - 가족
•박병희 - 김 스텔라
•장인석(미카엘) - 송광석(어거스틴)
•이성현 - 이재구(프란치스코)
•김인순 - 한상철(빈첸시오)

생미사 - 봉헌자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최 세레나 - 채희백(바오로) 가족
•염은미(클라라) - 가족, 에디슨 구역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율리아나) - 박재영(요아킴)
Carol & Cliff Rockwell
•김용무(데레사) - 박재영(요아킴)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율리아)
•황태진(필립보), 황옥자(데레사) - 김순옥(율리아)
•이슬기(레이첼) - 김순옥(율리아)
•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견진 축하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나채국(제노) 가족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37명 합계 : $1,431
2차헌금 (Development of People) 합계 : $441

감사 헌금

이순재($100) 이막동($100)

교무금 납부 안내

김삼식(5) 이대우(5-6) 임안나(5-6)
황태진(5-6) 유병기(4-6) 한상철(5)
합계: $1,130

공지사항

 # 2차헌금
- **5월 29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 Father's Day Mass Remebrance
- 6월 19일 아버지날 영적선물로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사물놀이 팀 개강
- 일시 및 장소: 6월 4일 (토) 오전 10시, 친교실
- 준비물 : 장구와 받침대, 꽹과리, 징
-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 환영
- 문의 : 정길예(프란체스카) 352-682-2525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전례분과 피정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 달성하였습니다. 5/27까지 약정금액은 $39,559 (목표금액의 113%, 117가정 참여)입니다.

 # 프린스톤 한국 순교자 성당 주일학교 후원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2022년 6월 18일 (토) 오전 11시 집합
- 장소: 뉴저지 프린스톤 인근 오크 골프장 웨스트코스
  Mercer Oaks Golf West Course
  725 Village Rd. W, West Winsor Twp, NJ 08550
- 참가비: 120불(점심, 저녁, 음료, 상품 포함)
- 저녁식사: 프린스톤 성당
  1130 Brunswick Ave. Trenton, NJ 08638
- 참가신청 및 문의: 강완모 (908-391-9809)
  최현식 (732-343-0392)

 # 5월 24일 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학생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두 학생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전 혼성 4부 성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당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헌금 봉투(빨간색, 초록색) 를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성당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제 1독서 <사도행전> 1,1-11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 1,17-23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 복음 > 24,46-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